



경고의 뉴스레터 “나팔”

발행일 : 2016년 3월 발행 (제 71호)

발행 : 경고의나팔 출판

가격 : 프리페이퍼

나팔 HP : <http://www.geocities.co.jp/Technopolis-Mars/5614/>

목차:

- ◎권두 메시지 '재림의 날의 2 종류의 제자' 예레미야
- ◎간증 '토요일 모임에서 가르쳐 주신 것 E3'
- ◎알림 코너 '신간 서적 소개'

<권두 메시지>

'재림의 날의 2 종류의 제자' 예레미야

이번에는 '재림의 날의 2 종류의 제자'로써 이번 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21: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1: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러라

21: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

21: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1: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종말에는 2 종류의 제자가있다>

이번에는 재림 그리스도를 만나기 2 종류의 제자들로 이 일을 보고 갑시다. 우리가 종말의 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환난 시대를 경과로 그 날은 어떤 날이 있을까요? 그 것을 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텍스트에 따라 살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곳은 주께서 친히 베드로와 요한의 삶을 예언하고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쓰여진 책이며, 테이블의 의미뿐만 아니라 뒷면에도 문자가 쓰여진 책입니다. 뒷면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뒷면의 의미로는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개인에 그치지 않고, 종말의 날에있어서 제자들의 운명을 예언 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부활하는 것을 내가 원한다해도"라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1: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에 따르면 있다면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두 종류의 제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베드로처럼 순교를 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에 관한 예언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당신은 자신의 손을 뻗어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띠를 시켜 당신의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고 분명히 그의 순교를 예언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1: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러라

21: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

21: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런데,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입니다. 그 요한에 대해 주님은 순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부활하기를 내가 원하는"으로 주님의 재림까지 부활하는 것조차 말합니다. 물론 2000 년 이전의 사람이다 요한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부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한은 형태이며, 종말의 환난 시대를 거쳐 게다가 부활하여 재림의 주님을 만날 제자의 형태입니다.

21: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하신 것이리라

여기서도 다시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부활하는 것을 내가 바란다"고 주님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부활하는 제자가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러나 반복 강조하고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교 베드로,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는 날까지 부활하는 제자의 형태인 요한

이 구절에서의 배움은 이 것입니다. 즉 종말의 날의 환난 시대에서 순교하는 제자도 있지만, 그러나 환난 시대를 거쳐, 게다가 부활하시는 주님의 재림에 발생하고 주님을 만날 제자들도 그 수 가르쳐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에 재림의 날에는 두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것을 주님의 재림의 날에 2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실은 데살로니가 사람에게 편지에도 쓰여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3 ○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4:14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4: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너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4:18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구절의 뒷부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따라서이 텍스트의 부분도 주님의 재림의 날을 다룬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든 사람들, 구체적으로는 환난 시대에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목숨을 잃게 때문에 슬프게도의 것입니다만, 바울은 "다른 희망없는 사람들처럼 슬픔에 잠기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순교를 애도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4:13 ○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는 그 순교자가 죽어있는 동안은 짧은 기간 동안 길어도 3 년 반 환난 시대 사이이며, 그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러한 순교자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온다 에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순교하는 제자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신속하게 부활, 재림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것입니다.

4:14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4:15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생존이라는 말이 암시입니다.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짐승의 나라와 적 그리스도는 환난 시대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을 멸종하려고 시도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움으로 끝까지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살아남 기독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 순교자 (죽은 사람)에 우수 영예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 남아있는 우리가 죽은 사람에 우선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사람들에게 관해서는 조금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즉 그들은 산 채로 구름 속에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입니다. 즉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요한 같은

사람은 그 날,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몸은 갑자기 영화되는 것입니다.

<산 채로 영화될 것이다>

이 것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50 ○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15: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15: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15:53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15:54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부분을 봅시다.

15:50 ○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살아남은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있는 혈육의 몸에서 그

남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금의 육체는 노화, 열화하는 것이며, 수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5: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에서도 주님의 재림의 날의 2 종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것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비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잠 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즉 환난 시대의 날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잠, 즉 순교하고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 많은 환난 시대의 끝까지 살아남아 그 날, 지금의 육체가 개조되고 영화되고, 재림 그리스도에 오른다 그것이 재림의 날에 관한 성경적인 설명입니다.

15: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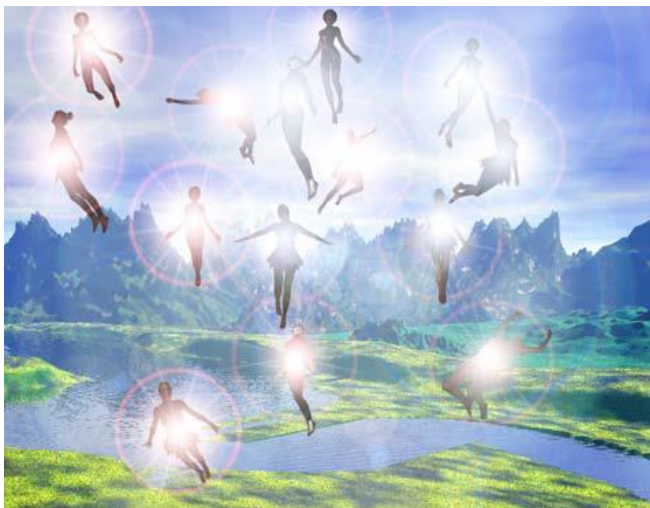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지금까지의 육체로부터 썩어 때문이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는 영원히 살 수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이 말하고있는 것, 또한 바울이 일부러 비밀로 말하고있는 것을 이해합시다. 그것은 환난 시대를 경과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한다는 생각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환난 시대를 거쳐 산 채로 주님을 만날 기독교도 많다 그리고 그들은 재림의 날에 순식간에 그 몸이 영화된다는 이 것입니다.

<다니엘이 암시하는 성도의 모습>

성도의 모든 환난 날에 순교한다고는 할 수 없는 이 것은 다니엘서를 봐도 분명하다. 다니엘서에서 다니엘도 다니엘의 친구들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 위해 환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는 환난 시대의 형태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동상에게 절하지 않으므로 불 용광로에 던져 질 것입니다. 그리고 3 명은 불타 골목라는 것이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 주님의 개입으로 그들은 도움이되었다는 것이 결말입니다.

또한 다니엘 관해서도 그는 왕이기도를하지 않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순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께서 사자의 입을 봉한 그래서 그는 지키고 생명을 영구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말하고있는 것은 환난 속에서 성도들은 순교한다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도는 환난을 만날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환난을 거쳐도 보호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환난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을 배울 필요가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 살아남은 사람들은 영화되어 선택된다

이번에는 재작년 (2014 년) 6 월의 토요일 제자의 행보 집회에서 "제자"

대해 예레미야 목사가 추천되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구절은 누가 복음입니다. 다음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14:25 ○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14: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성경에서 군중과 제자가 대칭 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행보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군중의 행보에 있어 때 교회는 붕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중의 행보에 대해 주님은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마태 복음 7 장 26 절)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제자의 행보를 바탕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제자의 행보는 바로 군중의 행보와는 대칭적이고, "바위에 자신의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마태 복음 7 장 24 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무리가 있고, 예수님은 제자의 발걸음 소리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건으로... 주로 따르는 것보다는 부모 (직계 가족의 부모도 그렇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 인 목사도 그렇습니다.)이 소중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마칠 수 없는, 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즉, 제자의 행보를 뜻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 그러나 완수 여부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관해서도 주로 이것이 알려져있는 기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스도를 위해 버려야 말라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27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서는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표와 달성도 주로 바쳐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28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14:29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를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14:30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제자의 행보와 관련하여 「탑」의 수 나옵니다. 그리고 「탑」을 지어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돈을 계산한다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행보를 했잖아요 좋긴 하지만, 그러나

완성한다는 것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것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4:31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14:32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방금 전 말씀은 일면은 "탑"을 세우는 '노'를 짓는 것임을 말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 말씀은 적과의 싸움에 대해 알려져 있습니다. 제자의 행보는 좋게 말하면 '적과의 싸움의 최전선' 그래서... 따라서 근사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망이 없다면 적과의 싸움 따위를 내뱉지 않는 편이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33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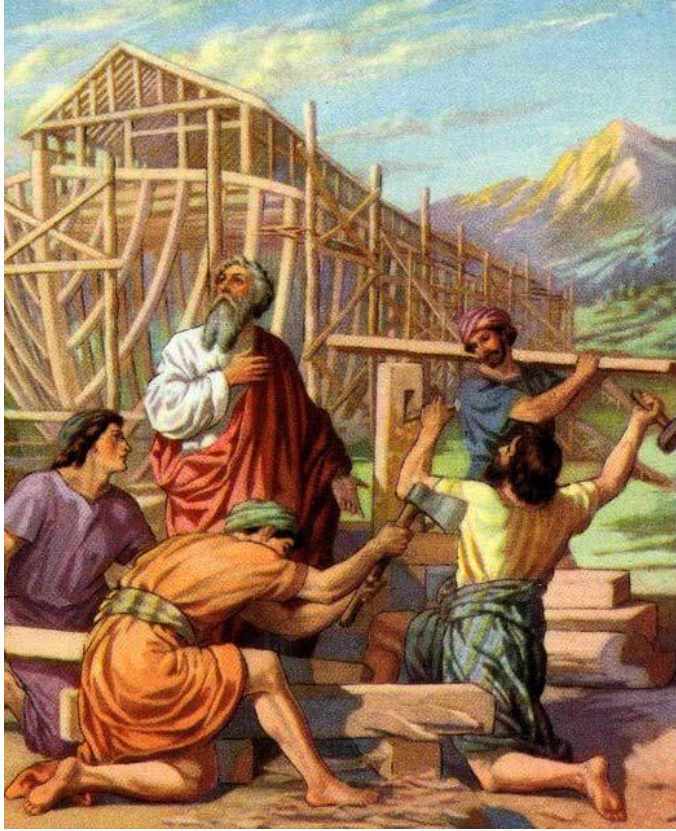
"재산"이라 함은 현금이나 토지뿐만 아니라 목표라든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적은 두 만명, 우리는 하나 만명, 그리고 어딘가에 만명을 두고있다 (제한을 하고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 나 어머니 나 사람의 평판이 나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1 만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을 그 근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뭔가 소중한 것을 떠나게 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소유"입니다. 주님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모두를 잃어도 해 나갈 것인가? 의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해서는 주로 모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의 행보는 어려운 좁은 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명'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자의 행보에 체재 없다면 ... 그 이유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 선가 "여기 만든"이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엄격합니다. 이것은 능력과는 관계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버린다면 제자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제자의 행보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 선가 제한을 해 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주시는 은혜가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주님 앞에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지만... 각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 그 근처를 잘 알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쳐 나갈 때 은혜를 주시고 실태를 살펴 보겠습니다. 제자의 행보를 도중에 끝나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요인은 "손재주 만 '이거나 혹은'아주 일부만 헌신하지 않는"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 제대로 걸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이상의 것을 예레미야 목사가 메시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자」에 대해 대체로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면 이런 것도 이해하실 수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소중한 것을 말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빕니다.



타워를 구축하다